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1
11

기획특집

한우 가격 안정 대책

한·미 FTA 국회비준 ... 한우 산업 대책

진단

음성공판장 출하예약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파워인터뷰

성윤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수익 개방. 국제역량
모진 풍파를 이겨낸
죽심 있는 우리한우

C·O·N·T·E·N·T·S

기획특집 1 02-04
한우 가격 안정 대책

진단 05
음성공판장 출하예약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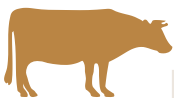
기획특집 2 06-07
한·미 FTA 국회비준 ... 한우 산업 대책

파워인터뷰 08-09
성윤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현장르포 10-11
구제역 이후 농가 입식 및 방역현장을 가다

Information 12-14
한우자조금 이렇게 씁니다

애독자 코너 & 전문점 소개 15



한우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소비를 바라며

제법 쌀쌀한 날씨는 어느덧 겨울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게 한다.

목전에 임박한 한·미 FTA는 쌀쌀해진 날씨만큼이나 한우농가의 목을 죄이고 있다.

한우는 국민이 사랑을 받고 있는 먹을거리이자 한국축산업의 얼굴이다. 한·미 FTA에 앞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한국축산업의 기동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금의 한우산업의 성장에는 소비자들의 한우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있다. 한우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소비를 바라는 마음이다.

권두언 | 한우농가에 드리는 말씀



남호경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우리모두 하나되어 자율도태와 방역에 힘쓰시다

한우가족 여러분! 올해는 어느 때와 달리 유난히 풍파가 많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올초 전국을 휩쓸고 아픔만 남긴 구제역을 시작으로 한우가격 하락으로 인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지금, 한·미 FTA 비준이라는 큰 파도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에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는 9월달부터 지속적인 농성과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한우산업의 안정화 방안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습니다. 우선 사료전진기지화를 위한 TMR 기기 공급 및 물류기지 설치 지원 요구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암소도태 장려금 지원 등 실질적 정책방안을 협의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우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한우 소비촉진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치며 장기적으로는 사육두수 조절과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한우먹는날을 기점으로 농협 및 전국 대형마트의 소비촉진행사를 진행한 결과 발렌타인데이 같은 외국 기념일의 매출을 넘기는 기록을 세우며 전국의 한우소비열풍을 이끌었고, 앞으로도 더욱 소비촉진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과 균형 맞춰야 합니다. 지난 6월부터 자율도태 캠페인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소가격의 하락으로 사육두수는 더 증가했습니다. 이에 도태장려금 등 사육두수를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농가들도 공급량 조절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겨울철을 맞아 한우농가 모두는 방역에 힘을 써야 합니다. '나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역에 소홀하다면 구제역의 고통을 다시 겪을 수 있습니다. 한우농가의 경쟁력의 첫걸음은 방역이오니 모두가 하나되어 방역에 힘쓰시다.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적정사육두수 유지

소비량에 따른 생산량 조절

한우 사육마릿수 과잉으로 가격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 농협, 협회를 중심으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쇠고기 소비량에서 한우가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적정 사육마릿수 수립해 유지하는 대책이다.

한우의 경우 생산량의 변화에 따라 가격의 변동폭이 큰

만큼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한우를 공급할 수 있는 적정사육 마릿수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적정마릿수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와 유관기관 생산자가 한마음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5년 후 중장기적 동향까지 분석

올해 필요한 한우 총 264만 마리로 추정

파동징후 조기 포착...과잉번식·도축 억제해야

한우의 적정 사육마릿수는

2015년 수요량을 기준으로 올해 적정 사육마릿수를 산출해보면 올해 필요한 한우는 암소 166만마리와 수소 89만마리로 총 264만 마리로 추정된다.

한우자조금 연구용역으로 GS&J인스티튜트에서 발표한 '한우적정사육마릿수 설정모델 개발 연구' 중간보고에 따르면 올해 필요한 한우는 총 264만 마리로 지난 9월의 사육마릿수는 적정 사육마릿수를 36만 마리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GNI(국민총소득)증가율이 4%이고 소매가격 연평균 상승률을 2.3%와 한우소비량이 올해 3.8kg에서 2020년 5kg까지 증가하는 것을 가정해서 산출한 수치다.

이같은 가정을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도축마릿수는 올해 71만9천마리에서 2015년 85만3천마리, 2020년 98만5천마리 가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가축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한우사육마릿수가 187만마리, 수소가 104만마리여서 올해 적정 사육마릿수보다 각각 21만 마리, 15만마리가 초과된 상황이다.

조영득 GS&J인스티튜트 연구원은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생산 및 사육마릿수의 조정지침이 필요하다"

며 "적정사육 마릿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4~5년 후의 중장기적인 동향까지 분석해 파동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과잉번식이나 도축을 억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육마릿수 조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 사육마릿수가 과잉되며 소 값 하락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암소 사육마릿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소 값 하락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상황을 해소키 위해 한우자조금과 농식품부, 농협이 암소 자율도태 TF팀을 구성해 암소 사육마릿수 감축을 위해 나서는 동시에 추가적인 한우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비촉진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암소의 도태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동안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대한 번식농가의 기대심리와 구제역 살처분 농가의 입식이 이어지는 동시에 오히려 사육규모를 늘리려는 농가도 생기면서 송아지의 가격은 한동안 안정화 되었다.

암소를 도태하는 것보다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도태에 소극적이었다.

이 때문에 전국한우협회측에서는 도태장려금 지급을 요



기획특집 11 한우 가격 안정 대책



구하고 있지만 도태장려금의 지급이 소 값 파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한우농가에서는 “암소를 비육해서 팔아도 등급이 높게 나오기 힘든 반면 송아지의 경우 적어도 165만원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으니 누가 자진해서 암소를 내놓겠는가”라며 “도태장려금을 지급해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암소도태에 나서게끔 배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은 “한우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도태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기준가격을 하향조정하게 된다면 암소 도축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나며 소 값 파동을 불러오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한우산업을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고 정부와 농협, 생산자 단체에서는 소비촉진에 매진해 안정적으로 소 값 상승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이번 가격하락에 한우농가들이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어 파동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연착륙으로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농가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외부적인 충격을 주기보다는 적정사육마리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홍보·교육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사육마리수유지, 핵심은 자율성

전문가들은 한우의 적정사육마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농가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없이 인위적인 통제는 불가능하고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의 적극적인 사육마리수조절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쇠고기 이력제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정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누락되거나 지연신고, 신고 미이행이 없도록 농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우자조금과 전

국한우협회에서는 적정 가임암소 사육마리수를 파악·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한다.

우병준 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장은 “적정사육마리수를 논할 때 보통 소비자들의 수요와 기호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결정하게 된다”며 “하지만 정확한 수급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상치를 바탕으로 생산자 단체 및 농가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팀장은 “한우시장은 11년을 주기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사육마리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이 안정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시장은 소비자들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을 바탕으로 하되 과대공급이나 과소공급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한우산업에 관련된 제도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소 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송아지생산안정제로 인해 번식농가에서 암소도태에 소극적인데 이를 개선키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현재 한우산업이 장기불황의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생산안정제를 믿고 송아지생산을 전혀 줄이지 않는 등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사육마리수 조절기능이 확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안정제로 인해 암소가 지속적으로 송아지를 생산한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 개편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수현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과장은 “안정제가 한우 사육기반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만큼, 사육두수가 줄어들때만 발동이 되도록 하고 사육두수가 증가할 때는 작동되지 않게 하는 방안으로 개편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 한우협회 등 농가에서는 “현실인 암소도태 장려금을 통해 사육두수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정부는 도태장려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도태장려금이 지급돼 두수감축이 이뤄진다면 안정제 개편에 대해서도 농가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진단 | 음성공판장 출하예약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출하예약제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농가 자체예약 못해 불만, 문제점 보완 필요

지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음성축산물공판장의 소 출하예약제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출하예약제 실시로 차상계류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이로 인해 도체 및 부산물의 품질이 좋아져 농가와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공판장으로 제기되는 민원도 크게 줄어들어 들었다.

하지만 이면에는 출하예약을 하지 못한 조합에 대한 농가의 불만이 높아지고 음성공판장의 도축물량이 서울 공판장시절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총 도축물량은 6,132마리로 지난해 동월기간의 총 도축물량인 7,649마리에 비해 1,500여마리 가량 적다. 금요일 도축물량이 100마리가 채 안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평균 85마리 가량 적게 도축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금요일 도축예약물량이 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요일 출하물량의 부진으로 인해 월요일 경매는 중도매인과 매참인의 참여가 저조하고, 이는 곧 가격하락 및 출하물량 부진으로 이어져 악순환의 반복이 된다. 이병길 음성축산물공판장 경영지원부장은 “금요일이나 비수기 출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조합에 대해서는 명절 등 성수기 출하물량 중 일부에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예약을 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농가가 소속된 일선조합에서 출하예약을 하지 못했을 경우 출하가 지연되기 쉽고 출하예약을 하지 못한 조합의 직원은 조합원들의 민원으로 인해 월요일 업무조차 힘들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음성공판장을 방문한 한 한우농가는 “한 차 실어보내서 3~4일 계류하게 되면 소 값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비용도 무시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농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조합을 통한 계통출하밖에 안되고 조합 직원이 출하예약을 하지 못하면 출하시기를 훌쩍 넘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농가자체 예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음성공판장 측은 예약전산망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과 개별 농가가 출하예약 후 출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규제가 불가능해 다소 힘들다는 입장이다.

음성축산물공판장의 한 관계자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예약하게 된다면 예약 후 출하하지 않았을 때 규제가 거의 불가능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기 쉽다”며 “뿐만 아니라 비수기 출하 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어려운 등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협회는 출하예약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자 농협중앙회 관할 부천, 나주, 고령공판장 뿐만 아니라 지역축협관할 공판장까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



기획특집 2 | 한·미 FTA 국회비준... 한우 산업 대책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요구사항

- 1 한우암소도태 장려금 예산수립
- 2 생산비 절감을 위한 TMR시설 지원 필요
- 3 축종별 축산시설현대화사업·방역시설 지원
- 4 피해보전직불제 직불금 상향
- 5 폐업 지원금 및 회생자금 지원
- 6 수입축산물 관세의 목적세화

FTA

한·미 FTA의 국회비준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10월 내 국회비준 처리를 목표로 하던 한나라당은 10월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패배하면서 강행처리의 동력을 잃었다. 여기에 민주당은 FTA 체결이전 국가-투자자 소송제도(이하 ISD)와 같은 독소조항 재재협상 없이는 FTA 국회비준은 없을 것이라고 뜻을 밝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국회 및 정부에 한우산업 안정화와 FTA피해보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우산업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힐 한·미 FTA 국회비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으로 한우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봤다.



10월 21일 FTA 비준반대 100배 기자회견.

10일 국회 본회의 취소, 24일 본회의 예정

11월 10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취소돼 24일 본회의까지 다시 한번 여야 협상의 시간을 갖게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지도부는 연이은 국회 본회의 취소에 대해 한·미 FTA비준안을 둘러싼 여야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처리 안전이 많지 않아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 FTA 국회비준도 자동으로 연기돼 오는 24일 본회의까지 추가적인 여야협상이 이뤄지게 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1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FTA국회비준 조기처리를 위해 국회방문을 계획

했다가 야당의 강한 반발에 3시간 만에 취소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이처럼 한·미 FTA 국회비준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10월 26일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큰 표차이로 패배하며 FTA 강행처리 동력을 잃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FTA 국회비준안을 한나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도 날치기로 통과시켜야 하는데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연이은 날치기 통과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내에서도 친이계 의원들과 친박계 및 쇠신파 의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당초 내년 1월 발효를 목표로 했던 한·미 FTA의 발효는 적잖이 늦춰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야당, 독소조항 재재협상 없이는 합의 못해

자중지란에 휩싸인 한나라당과는 달리 야당은 ISD를 비롯한 독소조항의 재재협상 없이는 국회비준에 동의할 수 없고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일부 정당은 실력으로도 저지할 뜻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미 FTA에 이르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국익과 주권수호를 위한 길이라면 돌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노동당도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각종 독소조항, 불평등 협정내용으로 국민주권과 국익이 철저히 훼손된 한·미 FTA협정내용으로 국회비준 통과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FTA국회비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더불어 시민단체 및 한우협회를 비롯한 농민단체에서도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한나라당의 강행처리가 아니면 연내 처리도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우인들은 무엇을 요구하나

한우산업은 사육마릿수 과잉의 여파로 지난 3월 이후 경영비 이하의 가격이 형성돼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FTA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한우협회에서는 6가지의 방향으로 한우산업 안정화와 FTA피해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우선 급증한 한우사육마릿수를 감축하기 위해 한우암소 도태 장려금 예산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암소 20만 마리를 도태하기 위해 1,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둘째로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해 자가배합사료(TMR)시설을 반값에 공급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국제곡물가 상승과 FTA 등 개방화에 한우농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존자원을 활용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TMR장비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농가에서 지역별 물류센터를 통해 사료원료를 구매하여 물류비를 절감해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우협회에서는 FTA자금을 통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축종별로 적용할 것과 현대화사업 자금뿐 아니라 방역시설 등과 같이 축산용 시설에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적정사육마릿수 유지가 목표가 되는 한우산업에 대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이 아니라 FTA 기금을 통한 방역시설 보조를 늘리는 것으로 축산시설의 지원대상의 범위를 넓혀 방역시설이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중 소 사육마릿수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요청은 FTA로 인한 세제를 개선해 비과세범위를 현행 30마리에서 50마리 미만으로 상향조정기로 협의했다.

다섯째로 한우산업이 규모화 되고 있는 것에 대응해 3톤 이상의 축산용 스킵로더 등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끝으로 축산서비스 업체 및 기관육성을 통한 경영절감방안으로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나 HACCP인증 등에 필요한 수수료 감축방안으로 정부가 해당 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필요한 수수료를 줄이기로 협의했다.㉔





파워인터뷰 | 성윤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FTA경쟁력 확보위해 TMR시설 지원 확충해야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 필요



성윤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한나라당 경북·상주시)

Q: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앞둔 상황에서 한우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대책의 보완사항은 무엇인가?

A: 한국농촌경제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로 농림수산물 분야에서의 추정피해액은 연평균 8,445억원, 15년간 12조 6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전체 추정피해액 가운데 약 60%인 7조2천억원을 축산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국내 축산업은 2010년 사상 최대 피해를 입은 구제역 대란과, 한-EU FTA,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 등으로 유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이 축산업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피해산업 지원대책은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 실제 2012년도 한·미 FTA 대책 예산으로 1조8천억원이 편성된 정부 예산안을 확인해보면, 약 32%에 달하는 6천억원이 한·EU FTA 예산과 중복사업이며 특히, 중복사업 대부분이 축산분야라는 것을 볼 때, 정부의 축산분야 대책은 시급히 보완해야 마땅하다.

현재 논의 중인 농축산물 가격 하락 시 피해보전 직불제의 발동요건 완화,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면제, 축산농가의 소득공제 확대, 축산발전기금 확충 등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한우수급안정을 위해 암소도태 장려금에 대한 예산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적정사육두수를 위해서는 암소 도축비율이 약 50% 이상은 유지되어야 하는데, 현재 도축비율은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암소도태

활성화를 위해 한우농가에게 동기부여를 하도록 암소도태 장려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암소 도태장려금이 시행되면 적정사유두수 유지에 일정부분 기여와 함께 송아지 생산 차단으로 인한 송아지가격 안정화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미발동 및 보전액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국내 한우의 과잉사육에 대한 수급조절과 가격하락 방지,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한우암소 도태장려금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Q: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자가배합사료(TMR)시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국제 곡물가격 상승 및 고환율 등으로 배합사료의 가격이 인상되어 축산농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미 FTA를 비롯 대부분의 피해가 축산분야인 한·EU FTA 등에 대응해 생산비 절감과 질병감소, 육량개선 등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TMR 시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TMR 급여 시 비육우의 경우 한우시험장과 양평 개군한우에서 실험한 결과 약 13%의 사료비 절감효과가 있으며, 배합사료 급여보다 등심면적, 등지방, 육량지수 등 모든 항목에서 TMR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불안한 사료가격에 국내 축산농가들이 대응능력을 갖추고 다가오는 FTA 발효를 대비 필수 사항인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에서 TMR 시설 예산을 시급히 확충해야 할 것이다.



Q: 구제역 백신비 부담과 유·사산 피해보상책 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축산업선진화를 명목으로 규제 위주의 정책은 추진하는 것은 축산업발전에 장애가 될 뿐이다.

한·EU FTA 이어 한·미 FTA, 캐나다 쇠고기수입재개, 한·호주 FTA까지 급진전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고려하면, 백신비용은 마땅히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하며, 백신접종으로 인한 유·사산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 등의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Q: 한우산업에 책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의 평가와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A: 한-EU FTA로 인한 피해액의 80% 이상이 축산분야인 가운데, 한·미 FTA로 인해 최대 피해를 보는 산업 역시 축산업이다. 정부는 FTA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대책사업 예산을 보면 축산농가들이 만족할 만한 실질적인 피해보전 대책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10년 전보다 못한 한우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최소한 한우암소 도태장려금 예산과 TMR 지원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한우를 포함한 축산업 안정화를 위해 지속 감소되고 있는 축산발전기금을 확충해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금의 한·미 FTA 대책사업과 예산만으로는 사면초가에 봉착한 축산업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다가

오는 한·미 FTA를 위해서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전국의 한우인들과 함께 예산확보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



현장르포 | 구제역 이후 농가 입식 및 방역현장을 가다

김창근

경북 안동
형제축산 대표

두 번은 안된다는 마음으로 소독·방역 최선 조사료 직접 생산...생산비 절감 모든방안 동원

지난해 구제역 발생당시 우사를 증축하고 있었던 김창근 형제축산 대표는 1월에 183마리 모두를 살처분한 후 허탈함을 이겨내려고 최대한 빨리 입식을 했다고 한다.

김 대표의 목장은 송아지의 1/3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2/3는 외부로부터 구입해서 비육과 번식을 동시에 하는 일관사육 농가로 살처분 후 증축한 우사에 맞춰 300마리로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차량, 개인소독기는 물론 안개분무 소독기까지 준비해 철저한 방역태세를 갖추고 있다.

김 대표는 “방역 매뉴얼대로 우사를 청소를 끝마친 후 생석회를 뿌리고 들어오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 소독하고 방명록을 작성한다”며 “한 번 소를 잃었으면 됐지 두 번 다시를 잃을 수 없다는 마음이



짐으로 소독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식마릿수를 늘리고 기존에 사료든 사양관리든 돈에 의존해서 사육해오던 것과 달리 조사료를 직접 생산하고 왕겨나 벼짚 등도 직접 구매·운송해 생산비를 절감키 위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한우산업이 불황에 빠져들었는데 곡물 가격이 상승으로 생산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목장이 경쟁력을 찾기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과 사양관리 등에 대해 철저히 배우고 모든 사양관리를 돈을 들일 것이 아니라 직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FTA시대에 한우농가가 경쟁력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태

전남 장성
동성목장 대표

생석회 등의 소독약으로 철저한 방역태세 생체백신 3차례 투여...구제역 확실히 차단

“농장 인근도로까지 생석회 등의 소독약으로 철저한 방역태세를 갖춰놓고 있으며 일단 외부인은 물론 외부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강성태 동성목장 대표(전남 장성군)는 “15년째 한우 150여마리를 키우면서 아직까지 단한 번도 전염병에 감염되는 적이 없다”면서 이는 평소 방역기록과 함께 축사에 완벽한 소독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우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크고 있다”며 매우 자신감에 차있다.

실제로 강 대표는 소에게 먹일 음수도 소독약을 타서주고 전 축사 내·외시설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특히 감염될 것에 우려해 소를 외부에서 유입하지 않고 자체 생산해 키우고 있다. 또 축협에서 각종 소독제를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고 있어 구제역 같은 악성 전염병은 확실히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구제역 전염병에 대해 인공적으로 면역을 주기 위해 생체에 투여하는 백신도 3차례까지 모두 마쳤으며 내년 1월 29일



4차례 마치면 된다면서 일부 농가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고 자기 농장에 대한 차단방역을 소홀히 하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자체에서도 전염병이 감염되기 전에 평상시 소독약 등을 부족함이 없도록 농가에 확대 공급하고 군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해 방역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게다가 현재 군의 공수의도 고작 4명에 불과하고 그간 지자체가 유사시에만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고 농가들도 자신의 농장에만 감염에 안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런 의식을 버리고 농가들이 서로 동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한·미FTA가 타결되면 한우 농가 힘들다. 정부차원의 사료보조지원이 시급하며 지금 한우값 하락으로 소가 사료를 먹는 게 아니고 사료가 소를 먹고 있는 셈”이라며 “FTA가 타결되기 전에 송아지 안정제 부분 등 현실에 맞는 정부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이상혁

강원 원주
뜨락농장 대표

65두 살처분 이후 52두 입식한 상태 축사 모든 소독시설 자동화...1일 1회 정기소독

“한우가 웃는 날이 대한민국이 웃는 날이다” 한우는 우리 5000년 역사와 함께한 가족으로 한우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다”

지난해 말 찾아온 구제역으로 인해 자식같이 애지중지 키우던 한우를 모두 살처분하고 얼마전 아픔을 딛고 재입식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이상혁 대표의 마음에 담은 염원이자 슬로건이다.

뜨락농장 이상혁 대표는 평소 우리 한복을 즐겨 입으며 우리 농촌을 지킨 대표적인 인물로 1961년 소띠 생으로 그가 걸어온 길은 소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표를 찾은 시간은 이른 아침 시간으로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한참 농장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한우를 키운지 25년째로 65두를 살처분 한 후 현재 80%인 52두를 입식을 한 상태”라며 “다시는 지난번 사태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기위해 재입식전에 축사의 모든 소독시설을 자동화했으며 하루 한번씩 정기적으로 축사 내 자동소독을 하고 있다”며 “암소는 고등 등록우 만들기과 비육우는 1등급

1*이상 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자동소독과 함께 미생물을 뿌림으로 건강한 소를 사육함은 물론, 냄새도 나지 않아 좋다”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실제로 농장은 이 대표가 거주하는 가정집 바로 옆에 위치한 상태로 축사 냄새없이 생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입식 시 관리 감독 기관에서 청소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소독이 중요하지 청소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물청소를 하고 소독약을 흠뻑 적셔서 소독을 충분히 했으나 분이 조금 묻어 있는 것을 가지고 솔로 바닥 청소를 새로이 하라고 하여 입식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행정도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협회도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행정 및 유관기관에 건의함에 있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공준식

한우협회 경기도지회
사무국장

이달 말쯤부터 50~60마리 입식 시작 우사 내부에 안개분무식 소독기 설치

“지난 봄에 구제역추이나 소 값 동향 등을 고려해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에 입식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송아지가 격도 많이 내렸고 여러모로 입식하기에 관창을 것 같아서 이달 말쯤부터 입식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한참 부족할 수 밖에 없겠지만 우선 50~60마리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백신접종 후 6일 만에 190여 마리의 전 마릿수를 살처분했던 공준식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사무국장은 이처럼 말하며 입식 계획을 밝혔다.

이제까지 키워오던 소의 규모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규모이지만 지급된 살처분 보상금으로 한우 사육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가 그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이었다.

공 사무국장은 “이전에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에 60마리 정도를

축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구제역 때문에 채 출하하지도 못하고 모두 땅에 묻었다”며 “우리농장의 소가 60마리만해도 4억2000만원 가량되는데 190여마리를 살처분했는데 지급되는 보상금은 고작 8억원, 약조건 속에서도 입식계획에 맞춰 얼마전 우사 내부에 2000만원 상당의 안개분무식 소독기를 설치하고 2003년에 농장입구에 설치했던 소독기 점검도 마친 상황이다.

이같은 소독장비 확보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 당시에 정부에서 나서서 방역을 했지만 장비가 공 사무국장은 “지난해 정부에서 해서 마련했던 방역장비들은 혹한에 얼어붙어 제대로 작동한 것이 없어 농가에 실질적으로 의미도 없었다”며 “대부분의 농가에서 는 자비를 들여 장비를 구매하고 농장에 들어오는 차량과 사람 전부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Information |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11월 1일은 한우를 즐기세요~

한우자조금과 유통업체 연계해 전국적 할인행사 진행

11월1일 한우먹는날을 맞아 한우자조금과 대형마트가 연계해 할인판매를 진행한 결과, 발렌타인데이 같은 외국 기념일을 넘는 매출을 올리며 기염을 토했다.

한우자조금과 농협중앙회는 전국적으로 한우 먹는날 기념식을 진행하며 한우할인행사를 펼쳤다. 서울지역은 지난 1~2일 이틀동안 서울광장에서 진행해 이동판매차량을 활용해 한우고기 할인판매하며 타임캡슐 봉인식, 한우고기 스페셜 할인 이벤트,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또한 농협유통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등심 및 불고기를 할인해 판매했다. 또한, 나눔축산의 일환으로 다문화행복가족센터, 어린이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3곳에 한우불고기를 제공했다. 한편 농협유통도 지난 10월 27일부터 6일까지 한우암소 600여두 등을 마련해 등심 및 불고기, 사골 등을 할인판매를 진행했다.

이마트는 지난 1일 단 하루만 등심(1등급/100g기준) 2,900원 등 정상가의 최대 반값으로 낮춰 판매한 결과 117억원의 매출을 올려, 작년보다 167.9% 이상 높았다. 이는 이마트 일일 최고 한우 매출을 경신한 것은 물론이고, 단 하루 행사에 올해 밸런타인데이 1주일간(2월 8~14일) 행사 실적 116억, 화이트데이 행사(3월8~14일) 실적 82억보다도 높은 실적을 낸 것이다. 생긴 지 불과 4년 된 '한우데이'가 외국에서 건너와 오랫동안



동안 생겨진 밸런타인데이를 앞지른 셈이다. 올해 행사에는 작년 '한우데이'보다 4배 많은 한우 300t, 1천500마리 물량이 판매대에 나왔다.

홈플러스는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소 통째로 잡는 날' 행사를 진행해 총 800두 가량의 한우등심, 국거리, 불고기를 최대 44%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122개 전 점포에서 불고기시식을 진행했다. 롯데슈퍼도 1일부터 10일까지 한우 500두 초특가행사를 마련해 정상가 대비 40% 할인해 판매했다. GS리테일은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한우정육 및 부산물을 30~45% 할인행사를 진행했으며 AK프라자도 30~35%할인판매 및 시식행사를 했으며 신세계백화점은 20~50%할인하며 3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친환경 삼채소를 증정했다. 현대백화점도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한우암소를 30~35% 할인판매하며 한우 5만원이상 구매 고객에게 불고기/국거리를 600g 증정해 소비촉진을 유도했다. ☺



한우와 함께하는 한우문화공모전

제5회 한우문화공모전 수상작 발표

제5회 한우문화공모전이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발표됐다.

올해는 광고디자인 273개 작품, 사진 576개 작품, UCC 24개 작품, 새롭게 추가된 CM송 17개 작품, 수기 65개 작품 등 총 955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이들 작품 중 전문가 심사위원의 1차 심사를 통과한 161개 작품을 2차 심사를 통해 황소상, 암소상, 송아지상, 입선, 가작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번 한우문화공모전은 총 73개 팀에서 작품이 수상의 영예

를 받게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대상 수상작은 나오지 않았다.

심사위원들은 “다양하고 신선한 주제의 작품이 많이 출품되었지만, 문화공모전의 대상 상금이 1천만원임을 감안해 상금에 상당한 수준의 작품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남호경 위원장은 “올 해 한우산업이 여러모로 어렵지만,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한우로서, 안전한 품질과 우수한 맛으로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조금은 수상작에 대해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시청 광장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한우 홍보행사 및 광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광고디자인]
황소상



한우문화공모전 수상자 명단(황소상, 네티즌 인기상만 게재)

구분	수상자	작품제목
시각부문(사진)	김재현	美소
시각부문 (광고디자인)	배일로	시리즈1 - 대한민국의대표-한우1 시리즈2 - 대한민국의대표-한우2
미디어부문(UCC)	김재효	우리가 지켜온 우리 한우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미디어부문(CM송)	전정임	우리한우주세요
수기공모부문	이호권	젊은목부의꿈
네티즌인기상	이유나	한우보감

※ 자세한 내용은 www.cdesignhanwoo.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황소상



우리가 지켜온 우리 한우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UCC]
황소상





Information |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어린이 초청 한우 그림자 공연과 체험이벤트

11월 말까지 수도권 각 지역 순회공연 예정



한우자조금은 유치원생을 초청해 한우 그림자 공연과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지난 9일 동대문구민회관을 시작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순회공연을 진행한다.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우를 먹으면 건강해지고 예뻐진다는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즐길 수 있도록 각색한 그림자공연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인형극과 뮤지컬 등 일반적인 틀을 벗어나 새롭고 참신한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동대문구 소재 어린이집의 인솔교사는 “그림자공연을 처음 본 어린이가 많아 공연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던 것 같다”며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과 추억으로 남는 것은 물론 자연스럽게 한우와 친근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행사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림자공연 외 주먹밥 만들기 and 그림자 공연 이외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페이스페인팅, 비누방울 만들기, 풍선아트, 한우캐릭터와 사진찍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며 유치원생에게 자연스럽게 한우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어려서부터 우리 한우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고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한우에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 및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우자조금은 9일 공연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수도권 내 구민회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센터 등 총 8곳에서 어린이와 함께 하는 한우 그림자 연극을 포함한 다채로운 문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영분석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개체별 번식분만 관리부터 실시간 경영회계까지

개체별 관리부터 회계까지 한우경영의 실효성이 높은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한우자조금은 지난 10월 20일 한우경영정보시스템 개발 연구과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시스템을 개발한 (주)HAM컨설팅의 함영화 이사는 “한우농가의 경영규모가 대형화·전문화되면서 정확한 경영성을 요구되는 만큼 이번 시스템의 개발은 그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경영분석 시스템은 소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수익이 생기는 것으로 인식함에 따라 출하시기에는 수익이 많고, 그 외 시기에는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해 정확한 경영상황을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한우경영정보시스템은 번식이나 비육 또는 일관사육농가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회계상 잔액은 물론 약품이나 사료의 재고, 분뇨, 개체별 생산비 등 세밀한 농장의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또한 개인 PC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를 없앴으며, 농가의 판단에 따라 단순 번식분만작업에서부터 세밀한 경영정보까지 입력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한우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종합대상 김수경 학생 수상



한우사랑과 함께 친환경축산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한우자조금이 후원하는 제 2회 한우 그림그리기대회가 지난 9월 23~24일, 하동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장에서 펼쳐졌다. 전국 1,80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심사를 거쳐 지난 5일 시상식을 진행했다. 종합대상으로는 하동중앙중학교 김수경 학생이 선정되어 지난 5일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시상식을 가져 상금 170만원(한우 송아지 시세)을 받았다.



한우소식 이모저모

송아지생산안정보전금 지급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마리당 9만7000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가 및 사료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5기(9~10월) 송아지 평균산지거래가격이 155만3000원까지 하락해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한우송아지생산안정보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하락세를 이어가던 송아지가격은 4기(7~8월)에 4~5개월령 송아지의 평균가격이 165만원까지 하락한데 이어 5기에 접어든 9~10월에는 155만3,000원까지 하락해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대해 마리당 9만7000원이 지급된다.

현행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세부 실시요령에 따르면 한우 암소 사육농가 중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기별로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4~5개월령 송아지 가격이 안정기준 가격인 165만원을 밑돌 경우 3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송아지생산안정보전금의 지급대상은 5~6월에 태어난 송아지 14만 마리가량으로 135억~140억원의 보전금이 지급되게 된다.

조사료, 자급률 3년내 90% 늘린다

정부가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하고 축산물의 품질고급화를 촉진기 위해 2014년까지 국내 조사료 자급률을 9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총 50개소의 조사료 생산특구를 지정해 육성하고 상위 30%의 우수 조사료 생산경영체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권찬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2014년까지 조사료 자급률을 90%로 높이고 이를 위해 사료작물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는 내용의 '조사료 증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24만4000ha였던 조사료 재배면적으로 2014년에는 37만ha로 확대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지난해 ha당 7.7톤에서 9.4톤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우선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키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0개소씩 총 50개소의 500ha이상의 대규모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조사료 생산특구로 지정해 개소당 20억원씩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조사료 재배조건이 불리한 지역에는 맞춤형 조사료 생산단지를 매년 5개소씩 총 25개소를 조성·지원하고 간척농지 등을 이용한 조사료 재배면적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생산성 20% 제고를 위해 재배기술을 집중적으로 보급하고 지형, 기후에 따라 7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세부 작부체계를 개발·보급하고 작부체계에 적합한 내재해성, 다수성 종자도 개발·보급키로 했다. 특히 전국의 조사료 생산 경영체 1173개소를 평가해 2015년까지 상위 30%를 집중 육성하고 이들 우수 경영체에는 기계·장비의 추가 지원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계약재배 및 조사료 품질검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조사료 유통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사전계약재배를 추진하는 한편 타 시·도 유통 시 지급하던 장거리 운송비도 거리별로 차등지원하는 등 지원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애독자 코너



한우자조금은 농협 및 대형유통과 손잡고 한우먹는날을 기념하여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펼친 결과 발렌타인데이의 매출을 넘는 기염을 토하며 전국적인 한우소비촉진을 유도했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한우먹는날은 한우의 맛이 최고라는 의미로 '1'이 세 번 겹치는 이 날에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한우먹는날은 00월 0일 일까요?** 한우자조금 소식지 12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정답을 게재하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송아지 설사 예방약을 드립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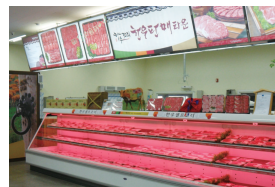
10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김익식(전남 무안군), 박민현(강원 동해시), 박진훈(전남 완도군), 가양현(충남 태안군), 김두환(경북 군위군), 김세철(충북 괴산군)

전문점 소개

향수한우 판매타운

전화 : 043-733-9577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20-4



청정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한우고급육만을 판매하는 '향수한우판매타운'. 자율식당을 겸한 향수한우판매타운은 한우농가 220명과 옥천

군이 출자한 한우 전문 판매장이다.

한우농가의 판로확보와 지역의 축산브랜드인 '향수한우'의 육성을 위해 마련된 이 타운은 한우육이 입고되면 판매타운의 자체 숙성실에서 알맞은 기간을 거친 후 작업을 통해 부위별로 판매된다.

암소 1++급을 비롯한 2등급까지 다양한 등급을 서울 등 도심지 가격보다 20~30%가 저렴하게 판매하여 소비자들이 기호에 따라 골라먹는 재미와 실속을 안겨준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철도 등 편리한 교통망이 펼쳐 있고 4번국도를 통해 대전에서 15분, 청주에서 1시간 남짓 걸리는 등 접근성이 좋으며 산지 판매로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다.

한우자조금

등록번호 114-82-61108

비매품 제8권 제23호 통권 제73호 발행일 2011년 11월 25일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_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60 커피아화관 3층 Tel : 02-522-4292~3 Fax : 02-522-3605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_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Tel : 02-525-1053 Fax : 02-525-1054 디자인 HNCOM Tel: 02-585-0091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전재할 수 없습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이 땅위에 자존심
한우

구제역 예방을 위해 우리모두 앞장섭시다.

- 구제역 백신 접종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 혈청검사 후 SP항체형성율이 80%미만 시 과태료 처분(500만원 이하)
- 50두 미만 농가는 백신접종시술비가 지원되오니 적극 참여합시다.
- 백신 접종 확인서는 필히 휴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 농장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며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 바로 신고합시다.
- 구제역의심 신고전화 1588-4060, 1588-9060



“구제역 방역,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한우홍보대사 최수종·하희라 부부